

창조론과 진화론

Creation and Evolution

(상속권을 주장한다 - 2편)

이 기록에 명칭이 "상속권을 주장한다."에 연속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암시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차례대로 알 수 있도록 2 가지 문제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2)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가장 확실한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한다. 일찍이 나의 인터넷에서 "영적인 진화론자들"에 대한 언어를 언급하였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물리적"인 진화인지 안다, 또한 진화를 선언하는 자연 과학은, 절대로 참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지식의 근원을 근거로 하여 관찰한 **사실들**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저술가들을 연상케 하는 중요한 견해가 된다. 오랜 세월동안 하나의 핵종이 또 다른 핵종으로 변화되어 닮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찰하여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생각은 결함이 많다 - 그러나 초기에 그들 가운데에서 진화론이 "학설"처럼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학설이 아니다. 학설들은, 근거를 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진화는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여기에서, 참으로 진화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상을 말할 것이다 - 이것이 **종교**이고, 또 이것에 관한 암시를 그대의 인생관으로 보존하면 참된 기독교인의 실체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 진화론이 종교인가? 지금 그 종교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 종교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신뢰하는 주의이며, 알지 못하는 어떤 것과 증명되지 않은 것을 진리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의미가 되고 일반적인 관념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좀더 깊이 추가하여 설명하면, 역시 정해진 관습과 기타, ...등등이 포함된 것이다. 지금 진화론의 "학설"이 무엇을 말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진화를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는다: 인간들이 (우리가 최후에 무엇으로든지 변화될 것이다.) 이전보다도 우월하게 점진적으로 발달되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상태가 된다. 인간들이 원숭이 같은 실체로부터 발달하여 변화되어 왔고, 원숭이는 더 작은 포유 동물로부터 변화하여 발달하였으며, 포유 동물들은 새들이나 파충류에서 왔고, 새들이나 파충류들은 물고기로부터 양서류의 단계를 거쳐서 향상하였다. 이 물고기들은 한 때, 더 작은 물고기들로서 물 속에서 살았던 피조물들이었으며 원래 단세포로 된 미생물들이었다. 지상 선사 시대 최초로 이 미생물들은 일찍이 생명이 없는 단백질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 즉 생명을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의 "혼합액"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자생 발생 세대"라고 부른다, 이것이 일세기 반 이전부터 허위로 입증되어 왔다. 물론, 과학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바보 같이 보이므로, 그들이 어떤 더욱 좋은 해명이 나타날 때까지 쇠퇴한 그들의 이론들을 집착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것보다도 아주, 아주 더 나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지상의 선사 시대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그대가 질문할 것이다. 여기에서 적당하게 - "무수한 세월 이전에," ("옛날 옛날에" 라고 읽을 수 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에너지가 함께 끌어당겨져서 합쳐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것이 한 장소, 이 페이지 위에 있는 점만큼 아주 작게 압축되었다, 그것에 포함된 모든 미량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작은 점이 몹시 걸잡을 수 없이 회전하기 시작한 그 상태에서, 줄곧 아주 격렬하고 또 아주 격렬하게 자라난다. 이 점이 마침내 밖으로 향하여 (우주 대폭발로) 폭발하였고, 또 그런 식으로 은하계, 별들 그리고 유성들이 만들어졌다. 이 우스꽝스러운 항목의 학설이 과학적인 원리에 따른 것들이 되었고, (예를 들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은하계/별들/유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그러한 상태라면, 자연 과학의 법칙이 각 운동량에 따라 보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지금 요점이 된다...

그것을 대사건이라고 한다. (비록 그런 식으로 단정할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이 다 입증되지 않은 것이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상, 그들이 진술한 그 모든 요점들이,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와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진화론 과학자가 정연하게 진화의 실체가 참되다. 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빈약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규칙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신화적인 사건을 믿음의 바탕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체계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과정을 (또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대가 위에서 설명한 "종교"의 정의를 내린 것을 보고, 그대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모든 생명이 암석에서 나왔다. 고 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참되다." 고 한다. 그들이 그러한 성명서를 그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른 생소한 사람의 종교다; 오직 기독교 신앙이, 나의 종교이고, 나를 구원한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게 실제로 개별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가치와 힘이 되고 목적이 된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한 근거가 자연 과학이고 영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 사건들과 어떻게 모두 연결되는가? 만일 그대가 참된 진리를 알면, 왜 진화론의 종교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고, 또 이 유독한 가르침이 참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배후에 실체가 되는 것을 그대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영원한 상속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질문을, 분명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백년 전에, SDA 교사 A. T. 존스가 기록한 설교를 준비하였다. 그때까지도, 그 새로운 이단이 영적인 위험성을 함축하였으므로, 참된 기독교 교회들 안에서 용감하게 경고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그의 설교는, 변경되지 않았고, 의견을 추가하지도 않았다, 여기에서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은, 진화론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곧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주장한다.

창조론 또는 진화론 -어느 쪽인가?

내가 오늘 오후에 진화론을 주제로 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대가 이것에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대 자신들이 진화론자인지 아닌지 간파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진화가 무엇인지 읽는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할 때, 그대 자신의 의도를 간파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대가 진화론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들은 진화론을 근거로 한 학술 논문이며 진화론자들의 우두머리가 기록한 것을 모두 복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 모두가 정확하게 그들이 정의된 내려서 기록한 그대로이다:

"진화론의 학설이 설명하는 것은, 지상의 코스가 막연한 것으로부터 확정적인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부터 다종 다양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또 지상 자체 내에서 내재하는 것들이 변천하는 원인이 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진화론은 이런 식으로 거의 발달되는 것과 동일어이다. 이것은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보다 나쁜 것으로부터 더욱 좋은 것으로 변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느낌들이 판단한 대로, 모든 존재물들 안에서 그 가치가 향상되는 것이 주안점이다."

지금 이 세 문장에서 특별하게 지적하는 것을 유의하면; 진화론은, 지상의 코스가 막연한 것으로부터 확정적인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부터 다종 다양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보다 나쁜 것으로부터 더욱 좋은 것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지상 그 자체 안에서 변형되어 내재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실체가 더욱 좋아지는 것이고; 또 그것에 기인하여 더욱 좋아지는 것이 그것 자체이다.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는 것의 가치가 증대되고 향상하는 것의 표적임을 우리가 느낌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대가 알다시피 그대가 더 향상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더 향상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떤 지점에서 그대가 향상된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의 느낌들로 그대의 입장을 조정한다. 그대의 느낌들로 그대의 지식을 조정하여 그대가 보다 나쁜 것으로부터 더욱 좋은 것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진화론이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읽는다; 이것이 불신임을 그대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만일 그대 자신이 진화론자임이 발견되면, 일찍이 그대가 무신론자였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화론의 가설이 겨냥하는 것은, 실재물들이 '시작'한 것과 '발생'한 것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고대 우리 조상이 소유한 본질적인 감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애의 근원이 그것으로부터 온 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학적인 부류에 항목들로, 진화론의 교리를 가장 크게 창설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새로운 지질 과학이 되었으며, 이것이 광대한 구상력으로 우리 지구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간 것으로 제정되었다, 이 광대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이 주제에 대하여 또 다른 저술가들의 우두머리가 저자로서 참으로 -- 말하기를, 진화론의 발전상은 "사람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그 발전이 무수한 세월들을 통하여 진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발달함이 현재 상태까지 끊임없이 똑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많은 오르내림을 통과하였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지상이 대단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 뒤 곧, 격변 또는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발달되기 시작하였고 또 다시 연속적으로 발달하였다. 아주 여러 번, 이 과정을 통과하여 발달하여 온 것이 진화론의 발달이다-- 이는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더 나쁜 상태에서부터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지금 그대의 어떤 것이 아주 나쁜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향상하고 발달하였는가? 그것이 "오르내림을 여러 번" 통과하였는가? 그대가 습득한 것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하기 위하여 -- 그대가 처음에 기독교인임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 오르내림에 긴 과정을 통과하여 왔는가? 어떤 때는 그대가 아주 잘 행하여서, 길보기에 그대가 큰 진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유쾌하였다; 그런 다음, 한 순간의 경고도 없이 대변동이 있게 되고, 또 폭발하여, 모든 것이 망쳐질 것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르내림을 무릅쓰고, 그대가 또 다시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런 식으로 그러한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 통과하여, 오늘 그대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모조리 "뒤돌아보고," 그대가 생각하기를, 어떤 진보를 한 것으로 표할 수 있다고 느끼고 판단한 것이 -- 그대의 경험인가? 그런 식으로 그대가 발달하고 향상하였는가?

바꿔 말하면, 그대가 진화론자인가? 내가 지금 그대가 진화론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므로 얼버무리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을 고백하라. 진화론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곳에 온 모든 진화론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이곳을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진화론자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설명할 때,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그 상태가 그대 자신이라고 시인하고 바로 말하라, 그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실 단계들을 계속 따라가라, 그러면 그대가 그 모든 것로부터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만일 내가 설명한 것을 그대가 경험하였으면, 만일 그대의 기독교인 생애에서 행한 것이 그러한 부류에 진보를 하였으면, 그렇다면, 그대가 시인하든지 시인하지 않든지 간에 그대는 진화론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 자신이 진화론자임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라.

그것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진화론을 입각시키고 있는 한, 그것을 영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이 분야를 실재적인 것으로 적용시켜서 창조론의 개념을 무시한다." 지금 그대가 그 원칙에 입각하여 그대 자신을 보고, 그 진보가 확실히 그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언젠가 그대가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 안에서 주관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그대가 틀림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었고, 또 따라서 그것을 생취하게 된 것은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만일 이런 식으로 그대가 그대의 진보를 기대하고, 지켜보면서, 표를 하면, 그대는 진화론자이다. 진화론이 무엇인지 내가 더욱 깊이 읽는다: "이 진화론의 학설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창조론을 대립한다... 진화론의 개념은, 세상이 발달되어 향상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적용하고, 창조의 능력을 직접 대적한다."

그것이 진화론이다, 이것은 어떤 자가 정의를 내려서 만들어낸 것이다. -- 진화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세상 자체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발생되었고, 현재 상태에 이르렀으며, 또 세상 자체가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생산하여 내재한다. 고 한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이것이 참되다면, "진화론은 직접적으로 창조론을 대적한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세상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대는 믿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대가 진화론자가 아닌 것을 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대가 믿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고 말할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진화론은 창조론을 위한 장소가 없다.

그렇지만, 진화론의 다른 부분이 명백하게 창조론을 단호히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그대에게 읽어준, 이 진화론을 만든 자들이 무신론자들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고 자부 한 것도 아닐 것이다 -- 믿음 없는 사람들이 -- 아주 무신론자들이고, 오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비록 사람이 믿음이 있다. 고 자부할지라도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면 무신론자이다. 물론 오늘날 "무신론자"에 대한 단어가 더욱 세밀하게 한정되었다. 내가 그대에게 읽어준, 이 진화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에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학설을 널리 전파하는 자들에, 대단한 수가 기독교인들이라고 공언하고, 믿음이 있다. 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고 선언하는 자들이면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능력이 없고,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 새로운 것으로 때려낸 존재들은, 인기 있는 새로운 과학에 따라서 열중하기를 원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믿음의 진로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 갈 수 있다. 고 기꺼이 말하지도 않으면서, 창조론 없이 창조주와 함께 진화론 부류를 어딘가에 형성하였다. 그것의 모양을 진화 유신론이라고 칭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였든지 물체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 자체가 저절로 계속 진행된다.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신 후,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은, 그것 자체가 저절로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 한다. 이는 참된 진화론자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식의 계약이며 임시 변통으로써, "창조로부터 진화를 전제로 하여 단계적으로 변천한다." 고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오직 진화론이다, 왜냐하면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중간적인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러한 부류에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그러나 예전에 재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어떤 사람이 믿기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그와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분명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여야 한다. 고 한다. 그런 까닭에, 항상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떨고 있으므로, 그들이 어떤 구원도 성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12,13.

지금 기록된 히브리서 11:3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구성되었고-- 함께 모아서, 배열되었으며, 조립되었다: 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원숭이들이나, 고릴라들, 또는 "진화의 과정에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에 존재했다고 가상되는 동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또 고릴라들과 원숭이들과 "인간의 중간에 진화 과정에서 존재했다고 가상되는 동물"이 울챙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또 훨씬 전에 울챙이가 원래 생물의 원형질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Yes!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나타난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 왜 정말로 나타난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결코 만들어진 것들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것들이 절대로 그것들의 모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그것들에 대한 속성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들이 나타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만들어진 것들과 이루어진 것들의 근원이며 완전한 구성 물질이 되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대가 알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시편 33:6-9. 이것에 접하여 내가 그대에게 질문한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오랜 후에, 그분 앞에 그것들이 나타났는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그것들이 그분 앞에 나타났는가? [발언: "즉시."] 일주일이나 지나갔는가? No. 6일간의 긴 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였는가? No. 진화론이 창조주를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후에, 보이는 것들로 형성된 것이, 막연하고 셀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다. 고 하고 또는 "6일간의 길고, 분명하지 않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고 관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론이고, 창조론이 아니다. 진화론은 긴 기간에 과정을 요한다. 창조론은 말씀 하셨을 때, 즉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빛이 왔을 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는가? 그대가 진화론자인지 창조론자인지 발견해 낼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기 바란다. 내가 또 다시 질문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실이 성취되었을 때 사이가 육일간에 긴 기간이 경과되었는가? No. 하루도 경과되지 않았는가? Yes. 일분도 경과되지 않았는가? Yes. 일초도 경과되지 않았는가? Yes, 참으로 일초도 경과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던 때, 그 둘 사이에 일초도 걸리지 않았다. [발언: "말씀하신 즉시, 빛이 있었다."] Yes, 그런 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것을 상세하게 점검하고자 함은, 이것을 그대의 마음 속에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고착되어서, 내가 그대에게 한층 더 어떤 것을 질문할 때, 지금 그대가 두려워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확정하고자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와서 번쩍인 그 때 사이가 일초에 시간도 경과되지 않았는가? [발언: "Yes"] 좋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타난 것을 모두 지나치도록 허락하면 진화론자이다. 만일 그가 셀 수 없는 오랜 세월 위에다 셀 수 없는 오랜 세월로 정하여 놓는 자는 하루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보다도 아주 더 큰 진화론자이다; 하루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자도 더욱 더 큰 진화론자이다.

"창공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 어떻게 되었는가?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창공이 있으라....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부터 창공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경과되었는가? 그것이 즉시 나타났는가? Yes. 그렇다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실제로 나타나서 존재한 때 사이가 막연하고, 아주 긴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 어떤 사람인가? 진화론자이다. 만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것 자체의 사물이 나타나서 존재한 때 사이가 하루, 또는 한 시간, 또는 일분이라도 경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두 가지의 큰 빛을 명하시고 또 별들도 만드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피조물을 위하여 풍성히 내고, 하늘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날으라." (영문 성경)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움직이는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영문 성경)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언제든지 그대로 되었다. 그것이 창조이다.

그대가 알다시피, 그와 같이, 진화론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며, 진화론 그것 자체가 창조론을 적대한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므로, 진화론이 창조론을 적대할 때, 따라서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한다. 물론 처음부터 정통한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며, 창조론과 진화론을 반반으로 믿는 진화론자들도 있을 수 없다. -- 그들이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반반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시작하였다. 창조론을 폐지하는 진화론은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아주 한계가 없고 뚜렷하지 않는 세월과 아주 긴 기간을 요한다.

만드시 창조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통한 진화론자들이 인정하지만, 즉시 실행됨을 믿지 않으므로,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다. 창조는 즉시 실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창조가 아닌 것을 잊지 말라. 만일 어떤 것이 즉시 실행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진화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태초에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창조력의 에너지로 사물이 산출되었다. 이것이 창조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지속될 것이다; 그것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자연계의 사물들 안에 거하고 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영원 속에 그 창조력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또 그것들 안에서 창조력의 에너지로 말씀하신 것이 산출된다.

이 예증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허다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신약 성경에서 말한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모두 다 인용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하나 또는 둘을 언급하여서, 이 원칙을 그대가 취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백부장을 만났던 것을 그대가 기억한다, 그가 말하기를 "내 종이 중풍 병으로 들어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치유하리라."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이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니, 결코 없도다." 고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성경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들임을 자만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읽었고;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시나각에서 설교하였으며, "내 말이..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성취되리라..." 고 한 그 말씀을 그들이 읽고, 말하기를, 이것이 틀림없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우리가 성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고, 참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속하였으므로, 그들이 결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참으로 말씀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멀리 떠나 있었다, 그들을 인도하는 가장 큰 자가 외치기를, "만일 한 사람이 오직 하루에 걸쳐서 율법 전체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고 하고 -- No, 만일 한 사람이 안식일 준수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율법의 한 부분을 지킬 수 있다. 고 하면 -- 따라서 이스라엘의 재난이 끝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비록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을지라도, 이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긴 세월이 걸린다고 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리라."고 하셨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력의 능력이 있음을 분간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자신의 생애에서 그것들을 모두 방치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들이 진전하는 그들 자신들을 보고, 말씀과 그들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도록 그들 자신들을 이끌려고 한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대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두려워하고, 그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그대 자신들이 진화론자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다. 그들의 진로는 창조론과 대립된다; 그것은 창조와 관계가 없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들 안에서 새 생명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모든 것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창조주를 거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 밖으로 쫓아내는 식으로 창조를 믿었다. 그것이 항상 진화론 자가 행하는 것이다, "진화론이 창조론을 직접 적대함"을 잊지 말라.

지금 예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에 관하여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서 한 로마 사람이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서 성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있었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이 그들에게 효능이 나타났던 것을 보았다. '그분 자신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완료된다. 지금 내가 그것으로 유익을 갖게 될 것이다.' 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가서 말한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으므로, 그 분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네 종을 치유하리라." "오 주님, 아닙니다, 주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시험하여 보는 것으로 그대가 알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기를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동시에 그의 종이 나왔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종의 치유가 얼마나 오래 경과되었는가? 이십 년이 지나갔는가? No. 그가 확실히 치유되기 전에 그가 많은 오르내림을 통과하여야 했는가? 지금 솔직하게 대답하라? No, no!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것을 실행하였고, 그 말씀대로 즉시 이루어졌다.

또 다른 날에 예수께서 걸으실 때, 문둥병 환자가 먼 곳에서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창조력의 에너지의 진리를 붙들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멈추어 서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마가복음 1:41,42.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실제로 성취된 때, 사이에 한 순간의 지체도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지금 그대가 이해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창조력의 에너지로 그분께서 언명하셨을 때, 그것들이 산출되었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때때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같은 창조력의 에너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증거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창조력의 에너지가 그곳에서 실재물을 산출한 것이다.

지금 그대가 진화론자인가? 아니면 창조론자인가? 그 말씀이 그대에게 임하였다. 그대가 그 말씀을 읽었다. 그대가 그것을 믿는다. 고 고백하였다. 그대가 다른 진화론자들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다; 지금 그대가 그대 자신을 반대하여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오늘 그대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즉 기간이 전혀 경과하지 않는 창조력의 에너지로 -그대와 그 말씀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들을 용서하였다."고 하였다. 그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긴 기간이 경과되었는가? "용서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진 때 사이에 어떤 기간이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와 같이 "너의 죄들을 용서하였다."고 오늘 그대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때 사이에서, 왜 그대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경과하도록 허용하는가? 조금 전에 그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창작될 때까지 일분이나 일초에 시간이라도 경과하여야 이루어진다. 고 허용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진화론자들이다. 고 하였다. 아주 좋다; 그것이 참되다. 그것을 고수하라. 지금 내가 그대에게 질문한다, 왜 그분이 그대를 용서하였다. 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가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그대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왜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하는가? 그대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진화론자라고 하였다. 그대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알고 싶다, 그대가 실제로 진화론자들임을 중단하고 창조론자들이 되고자 하는가?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특별하고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의혹에 대하여 어느 쪽이든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진화론자로 이곳을 나가면, 그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바로 지금, 이것이 그대에게 생명이 될 수 있거나 죽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그대가 말한 진화론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한 것이 옳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진화론자로 이 곳을 나가면, 그대가 어디에 설 것인가?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그리고 만일 그대가 죄를 용서받지 않고 이곳을 나가면, 그대는 진화론자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때부터, 또 그 사실이 성취되는 때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읽은 것에서, 누구든지 말씀하신 때와 실행된 때 사이에 어떤 시간이 경과하도록 하면 그가 진화론자임을 그대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인자야, "너의 죄들을 용서하였다" 여인이여, "너의 죄들을 용서하였다." [콜리스 장로: "너의 죄들을 용서할 것이다. 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Yes, "너의 죄들을 용서하였다." -- 현재 시제로 강조한 것이다. "너의 죄들을 용서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심에 감사 드린다, 그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창조력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창조를 믿는다. 그대도 창조를 믿는가? 그대에게 "용서하였다"는 말씀 안에 창조력의 에너지가 들어 있음을 그대가 믿는가? 혹은 그대가 진화론자가 되어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옳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가 실패를 많이 하였다. 내가 오르내림을 많이 하였고, 선행을 하여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하강하였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말하면, 그대가 진화론을 말하였으므로, 그대는 진화론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죄를 용서하심을 내가 믿고 또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취하였다, 만일 내가 그 말씀을 지속할 수만 있으면 확실하겠지만,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아주 많고 또 아주 많은 것들을 극복하여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나는 어떤 자신도 없다." 고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깨끗한 마음은 창조로 인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안에 넣어주리라." 지금 그대가 창조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자인가?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새 마음, 즉 그 안에 있는 창조력의 에너지로 새 마음이 산출되어 이곳을 나가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음으로 이 곳을 나가겠는가? 이는 그대의 새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만일 그대가 말씀하신 때와 새 마음을 소유한 때 사이에 한 순간이라도 지나가도록 허용하면, 그대는 진화론자이다. 그대의 경험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성취된 때 사이에 어떤 시간이라도 경과하도록 허용하였으면, 그대는 진화론자이다.

이곳에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Yes,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것을 성취할 것을 내가 믿는다. 고 하면서, 그들이 다음 집회까지 시간을 잡아늘이고 그대로 계속하므로, 장기간들이 지나가고, 또 그런 식으로 그들이 바로 그 정도의 진화론자들이 된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비와 경건함에 근처를 배회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상속분이 되심을 내가 안다." 고 선언하고 [널리 말하고, 그것을 널리 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창조력의 에너지가 있는 곳에 말씀하신 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상속분이 되심을 내가 안다." 고

선언함에 따라서 믿음의 신비와 경건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그대가 해결할 수 있다.

그대들의 그러한 죄된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신비다. 그러나, 그대가 염려하는 의혹이, 지금 그 신비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의혹이, 창조와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는가? 정결한 마음을 그대 안에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와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화되는 것인가? 바로 지금,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것에 대한 의혹이 분명히 오늘부터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대는 창조주를 믿는가? 그리고 그대가 창조주를 믿을 때, 그분이 그대 안에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물론 그대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 고 할 것이다. 아주 잘 말했다. 지금 그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그대가 다른 진화론자들을 옹호하는 창조론자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창조론자들을 옹호하는 진화론자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태초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고 하신 동시에 빛이 있었다, 그 분이 문둥병 환자에게 "깨끗하라."고 하셨을 때 "즉시" 그가 깨끗하였다. 그분께서 지금 그대에게 "네가 깨끗하라."고 하시면 지금 그대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은: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창조력이 있는 말씀 위에 그대 자신을 놓았다. 이것을 성경이 그대에게 말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력의 에너지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에게 똑 같이 임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그것을 세상 높은 공간에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이르렀고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오늘 그 말씀을 그대에게 하시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어둠으로 황폐하고 공허한 그대의 마음 속 공간에 그 말씀을 하셨다, 그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산출될 것이다; 오늘 문둥병 같은 죄로 고통당하는 그대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즉시 그대가 깨끗할 것이다. 그것을 허락하라. 그것을 허락하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것인가? "너희가 깨끗하게 되라."고 하신 창조력의 에너지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기록하였으되,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요한복음 15:3. 그대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그대가 이 순간부터 창조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화론자의 실체로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라. 그대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항상 그대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오. 이것은 창조다! 그 말씀하신 창조력의 에너지가 그대 안에서 창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참으로 창조의 능력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창조가 그대의 생애에서 계속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 거룩함, 참됨, 충실함 -- 모든 선한 것과 자비로운 것들을 그대 안에 창조하신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할 때, 결국 그대가 지키는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이고 --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가 창조주를 알고 또 창조의 과정을 남에게 알려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진화론자임이 확실하면, 그대가 지키는 안식일이 기만이다.

그대의 생애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창조력의 에너지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대가 지키는 안식일이 기만이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주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는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어떤 선한 일들을 달성하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지금까지 노력하였다. 진화론자들이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으나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왜 그대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 계속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에 유의하라. 그분의 말씀 안에 창조력의 에너지가 들어 있으므로, 창조주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대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대가 이곳을 나갈 때,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존재만이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기를 중단하라. 창조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시는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대 안에서 선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참으로 그대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대가 창조주와 함께 살게 된다, 그대가 창조력의 에너지 안에 동참하였으므로, 그대가 즐겁고, 고요한 평화와 기독교인에게 속하는 참된 힘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가 그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10. 그러면 창조주를 인정하라, 그대 안에서 오직 선한 일들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대 안에서 창조되지 않은 어떤 일에는 유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 안에, 주께서 창조하신 것 외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 구절에 접하여 그대가 진화론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현재 시제이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가 창조되었는가?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는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가 실제로 새롭게 창조된 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대가 허용하고자 하는가? 태초에 있었던 창조에 대하여, 그대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실재가 이루어진 때 사이가 일분이라도 경과된다고 하는 자가 진화론자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그대가 진화론자인가? 우리 모두가 다 창조론자들이 되자.

이러한 방법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지루하고 지치게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영광 중에 계시는 주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됨을 그대가 깨달았는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을 보고 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완전히 준비하려면 대단히 오랫동안에 기간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이것을 진화론자들이 실행하려고 한다면, 결코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창조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 이것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모두 실행될 것이다. 내가 앞서서 언급한 그 말씀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택할 수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비와 경건에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의 상속분이 되신다. 고 널리 공포하고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에 진화론자들이었는지 그대가 깨달았는가? 우리가 진화론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진화론에서 나와서, 창조론자들이 되고 진화론은 끝을 내자. 우리가 참된 안식일 - 준수자가 되자. 우리가 주를 믿자. 그분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정결한 마음을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다. 그분께서 그대 안에 그것들을 창조하시게 하라. 진화론자의 실체를 포기하고 또 그대를 위하여 창조력의 말씀으로 실행하시게 하고, 말씀으로 언급하신 것들로 그대 안에서 창조력의 에너지로 실행하시게 하면, 그대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이다. 참으로 바로 그 창조 안에서 정말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이런 식으로 그분을 만났고 또 이와 같이 날마다 그분을 만나면, 그러면, 그대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대가 그것을 믿는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빛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왔으므로, 또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문둥 병자가 "즉시" 깨끗하게 된 것을 그대가 믿는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을 생각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실이 성취되는 그 때 사이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오, 왜 그대는 진화론자가 되기 원하는가? 창조, 창조 --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대와 내가 사람들을 만찬에 초대하였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만일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고, 또 지금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가? 그것은 허위로 시작한 것이다. 내가 한 말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빈소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 창조력의 에너지에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준비하셨다. 이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코스 안에서 해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대를 지키실 것이다 -- 그 다음에,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서 누워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지금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면 그들이 듣기 위해 올 것이다. 선한 목자가 부르는 음성의 여조를 그들이 듣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창조력의 에너지를 위하여 그분께 활기 있게 오면, 부른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만찬이 준비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고, 이 세상 역사이다. 하나님의 표는 그분의 백성들 위에 실제로 고정된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되지 않은 자들 위에 그 분께서 결코 그분의 표로 고정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지 않고, 좋지 않은 어떤 자에게, 그분의 인으로 고정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아주 사악하면서 의로우신 그분의 인으로 고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대가 그렇게 요구할 면목이 없을 것이다. 그 분께서는 아주 의로우셔서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을 그대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께서 그대를 정결케 하셔야 하고 그분의 인을 쳐서 그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분께서 그대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인을 칠 수 없다. 그분의 인은 그분 자신이 승인하신 유일한 증서에 속한 것이다. 그 분께서 그분의 성품을 그대의 마음속에 기록하게 하면, 그런 다음, 그 분께서 그대의 마음 속에 그분의 인을 쳐서 고정시킬 것이다. 그 분께서 그대의 마음 속에 그분의 인을 승인하시고 기록할 수 있게 될 때는, 오직 그분의 창조력의 말씀으로 목적하신 것이 그대의 마음 속에서 성취되었을 때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단한 주제를 망라하는데 있어서 반쯤 되는 코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거론할 수 있는지 그대가 측정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끝낼 때, 창조의 임재하심 안에서 끝을 내기로 하자. 우리가 더 이상 진화론자들이 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때 사이가 한 순간도 경과되지 않도록 하라. 따라서, 창조의 임재 안에서 살고, 창조주와 동행하고, 창조력의 능력에 의하여 들어올려지고, 창조력의 에너지에 의하여 자극 받아라 -- 오, 하나님께서 곧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이실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과 같은 특정한 때, 이것이 별난 주제라고 그대가 생각하였을 것이지만 (이것이 기도 주일에 마지막 설교였다) 이것이 곧은 현대 진리임을 그대가 지금 깨달았을 것이다.

오직 두 길이 있다. 중간 입장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창조론자거나 아니면 진화론자에 어느 한 편일 것이다. 진화론은 믿음이 없다; 그것은 죽음이다. 창조론은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은 생명이다. 기독교 신앙과 생명이 되는 창조론을 택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직 창조론자들이 되고, 또 영원히 창조론자들이 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말하자.

A. T. 존스

리비유 헤랄드

1899년 2월 21일, 1899년 2월 28일, 1899년 3월 7일.

무엇을 더 많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아주 더욱 분명하게 제 칠일 안식일에 타당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였는가? 우리 주 야쉬와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대 자신에 **의하지 않고**, 그대를 **통하여** 그대 **안에서** 창조 사업을 끝내시게 하라, 그대가 이것을 실행하면; 그리고 그대가 이런 식으로 안식하면, 제 칠일 안식일이 주마다 그대의 표가 되고, 그 분께서 그대를 승인하시는 인침이 되고; 또 따라서 그대가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고 (그저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짧게 말하면, 그대가 이미 영 안에서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대가 다음 두 기록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하여 준비될 것이다.

그대가 있는 곳에 야께서 함께 하시기 빈다.

David 데이비드